

<2021년 11월 기도편지> ‘믿음의 발걸음’

살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가벼운 반팔 차림입니다. 365일중 300일 이상이 여름 같습니다. 아직 덥지만 다만 바라는 것은 마치 이 땅의 열기와 같은 주님을 향한 열정! 그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11월 믿음의 발걸음을 나눕니다.

1.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친다는 것..

지난 달 인카운터 수양회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삶 40일”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와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매주 주제에 따라 말씀생활, 기도생활, 공동체생활, 가정생활, 전도생활 등을 설교하고 한 주간 실천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점검하면 안하거나 또는 자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첫 주에 전한 말씀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5주간 전했습니다. 정말 순순간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 그럼에도 새로운 지체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종빈의 제목 중 하나가 배우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상자를 만났고 이번에 교회에 까지 데려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주일에 계속 나오기로 약속 했습니다. 이 후에 양육 계획도 잡았습니다. 종빈이도 이 자매(회이원)가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혼 할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후메이가 6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주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혼자오지 않고 어르신 한 분(밍홍)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분은 모임과 지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복음에 대해선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거절을 경험하면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체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것을 보며.. 올해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기도제목 하나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번 해에 12명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3. 성탄은 주님과 함께

12월 24일 “성탄전야 하비스트”(전도초청의 밤)를 계획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지체들에게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인 새 영혼을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지체들이 자신의 주변에 대상자를 찾고 공동체로 이끌어오는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가족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게 하소서

이 땅에 발을 디딘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해도 한 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11, 12월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 곳에 사는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더욱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새벽과 저녁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하영이가 손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이 곳에서 유독 계속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듯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인카운터 수양회 후 지체들에게 “새로운 삶 40일” 과정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계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2. 12월 24일 “성탄전야 하비스트”(전도초청의 밤)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대상자들을 데려오고, 영혼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3. 하영이 화상당한 손이 잘 아물게 하소서. 또한 한국 길이 열려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들어가서 눈 치료 받을 수 있게 하소서.
4. 부모님의 영과 육이 더욱 건강히 세워지게 하소서.(코로나 상황에서 보호받게 하소서)
 - 아버지 최세민 권사(뇌경색) : 가정에서 간병과 재활의 과정을 인도 하소서.
 - 장모님 김숙자 권사(다발성경화증) : 영과 육을 지키시고 주께 영광 되는 삶 되게 하소서.



첫 방문한 회이진(쫄빈여자친구)과
쫄빈이 손수 준비한 중국식 샤브샤브



11월 생일자들과 함께 축하



오랜만에 온 후메이와 첫 방문한 명홍